

지역 매아리

고창 인천강 하구역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내륙·하구·연안 연결 국내 첫 모범 사례… “생태자원 우수성 알리는 계기”



부안낙농영농조합 대표 이웃사랑 우유나눔 행사

(영)부안낙농영농조합법인 황상갑 대표는 18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우유 600개(500ml), 아쿠르트 600개, 치즈 200개 등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안군에 전달해 이웃사랑 우유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조성한 기금과 낙농지조금으로 마련됐다.

특히 부안낙농영농조합법인의 우유나눔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0만원 상당의 우유제품을 기부했다.

부안낙농영농조합법인 황상갑 대표는 “앞으로도 건강한 우유제품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안군민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낙농영농조합법인의 이웃사랑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재난·재해 예·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부안군이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들여 마을회관 등 100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13개 읍·면 513개 마을 중 340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년에 100개소와 2019년에 73개소에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해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방송과 군 재난상황을 연계하여 상황실에서 원격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실시간 재해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신속한 대처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재난 상황전파 활용도가 높아 예·경보 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재해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 하구역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천강하구 보호지역 지정범위는 고창천과 주진천 핵심지점에서 연안(갯벌)까지 약 9.7㎢로 이산면 반입리,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선운리 일원이며, 기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고장갯벌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전이지역으로 노랑부리백로(1급), 검은머리불새(2급) 등 10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 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내용과 연인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다.

그동안 군은 인천강하구역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받고자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토대로 3월에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연인습지인 고장갯벌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3월과 9월에 전리복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와 8월



에 환경부 관계자의 인천강하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요건 등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매입, 훼손지 복원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보전 관리대책이 마련되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 변화요인 등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 등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과 현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운곡습지와 고장갯벌을 연결한 생태 관광 연계사업 발굴 등 주민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는 육상·하구·연안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생태축을 완성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군의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시동’

### 환경개선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위해

고창군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과 더불어 상생하고 사생발을 수 있는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죽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축분뇨를 신속적 정리하게 처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의미

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지정서를 교부받게 되며 매년 시행되는 개별자리 시설지원사업(국비) 지원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과 자조금 지원 및 축산 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한 고창군 축산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어 대상자 선정이 유리한 이점을 갖게 된다.

군은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54

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이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창군 축산업 이미지 혁신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이를 다운 축산농장안내판 지원사업과 농장주별 조경수 식재, 환경경비 등과 연계해 깨끗한 축산농장조성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장에 걸맞은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며 체계적인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읍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훈련)’을 갖는다.

안전훈련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한 훈련을 통해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과 긴급 구조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관련 기관 간 통합과 연계훈련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

지기도 하다.

훈련에는 정읍소방서와 경찰서 등 8개 기관과 신재인 남성의용소방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지역 공동체·시민들이 함께하는 도심축제 공동체 페스티벌& 할로윈골목파티

####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역 청년들이 참여해 공동체 장터와 할로윈 골목파티, 막걸리거리, 각종 체험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막걸리거리에서는 우리나라 3대 막걸리로 꼽히는 대인PicGal리를 포함해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7개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첫 개최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할로윈골목파티는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있다. 귀신의 집과 쇼미더머니 J. 거리 이벤트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지역공동체와 청년, 시민들이 함께 하는 회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뽕만두·뽕진빵 출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뽕잎을 이용해 수제로 만든 뽕만두와 뽕진빵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뽕만두와 뽕진빵에는 만두피와 빵의 표면에 가능성이 풍부한 뽕잎기루를 접가해 기존 왕만두 및 진빵과 차별화했으며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뽕잎에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억제 및 동맥경화 예방, 변비개선, 다이어트 등 뛰어난 기능성이 함유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특허청에 부안 뽕만두·뽕진빵 상표출원을 했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은 “기능성이 풍부한 뽕잎기루로 만든 뽕만두·뽕진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긴식거리로 즐길 수 있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칭'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날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너히 넣고 점심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벼사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4호 | 375ml 5ea/13% |  
GIFT SET 5호 | 500ml 침뽕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6호 | 500ml 침뽕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

부안군 뽕만두·뽕진빵 출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뽕잎을 이용해 수제로 만든 뽕만두와 뽕진빵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뽕만두와 뽕진빵에는 만두피와 빵의 표면에 가능성이 풍부한 뽕잎기루를 접가해 기존 왕만두 및 진빵과 차별화했으며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뽕잎에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억제 및 동맥경화 예방, 변비개선, 다이어트 등 뛰어난 기능성이 함유돼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은 “기능성이 풍부한 뽕잎기루로 만든 뽕만두·뽕진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긴식거리로 즐길 수 있